

【 해외금융뉴스: 중국 】

중국보험업계, 춘절 폭죽사고 차량파손 보상 증가

□ 춘절부터 최근 정월대보름까지 도시에서 터뜨려지는 폭죽으로 인해 차량파손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보상도 증가하고 있음.

- 서우창안타이생명(首創安泰) 등 중소 보험사들은 춘절과 같은 특정일에 폭죽으로 의외의 사고를 당하여 장애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폭죽사고 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그러나 타이평양(太平洋)보험, 중국인민보험, 평안(平安)보험 등 중국 주요 3대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 등을 이유로 폭죽사고 전용보험은 판매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3개사는 폭죽에 의한 차량파손의 경우 일상적 차량손상과 같이 전액 보상은 아니나 별도 규정으로 일부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세부적 보상내역에 대해서는 각 사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중국 주요 3대 보험사들의 폭죽으로 인한 차량파손시 보상 내용 비교

타이평양보험	중국인민보험	평안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손상 및 보험사의 보상 의무 제외 불포함 규정을 적용받는 차량이 폭죽으로 손상된 경우, 일반적으로 적정금액의 70% 이내로 보상 - 차량유리파손 특약 가입시 피해금액 전액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평양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 - 차량유리파손 특약 가입시에도 손해사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70% 이내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죽에 의해 파손된 차량 차체는 일부에 한해 보상해 주지만, 차량유리 파손은 보상에서 제외

자료 : 보험 3사 홈페이지를 참조함.

- 일부에서는 주요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에만 신경쓰는 나머지 빈발해지고 있는 폭죽사고로 인한 실질적 차량파손 보상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철저한 손해사정과 특약설정 등의 방법으로 전액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타이평양보험, 중국인민보험, 평안보험 홈페이지, 인민일보, 2/4)